

지명(地名)과 사회집단

The Social Construction of Place Name as a Landscape Text

권선정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sjkwon85@dreamwiz.com)

지명(地名)은 사회집단간의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지리학적 해석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특징적인 사회집단으로 성씨집단과 촌계조직(洞契, 松契, 두레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발표는 과거 회덕현(懷德, 현재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 지역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은진송(恩津宋)씨와 관련하여 그들의 세거지였던 '송촌(宋村)'을 사례로 지명과 사회집단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씨집단간, 성씨집단 내 지파간의 권력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송촌(宋村)'은 그것의 한자표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송씨네 마을'이란 의미이다. '송촌'이라는 명칭은 18세기의 여러 지리지류 이전에 이미 1653년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俊吉, 1606-1672)이 증언한 동춘당 기문에서도 그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17세기 초반부터 은진송씨라는 일 성씨집단의 마을을 의미하는 '송촌'이라는 지명이 불려지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또한 은진송씨의 회덕 입향시기가 14세기말에서 15세기초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송촌(宋村)'이라는 지명은 적어도 은진송씨의 회덕 입향 이후 200 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 지역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송씨네 마을'이란 의미의 '송촌'이라는 지명은 은진송씨라는 사회집단의 회덕 입향 이후 그들의 세거지 명칭을 자신들의 성씨와 관련해 가질 정도로 타 성씨집단과의 관계속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경관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의 여러 지리지류를 통해 보면 '송촌'은 '상송촌(上宋村, 현재의 송촌동)'과 '하송촌(下宋村, 현재의 중리동)'으로 구분되어 표기되고 있다. 대개 지명을 상-하로 구분하는 것은 위상학적 고도차이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마을의 형성시기상 선-후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송촌'의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상-하 송촌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은진송씨의 회덕 입향과 관련해 입향조가 처음에 자리잡은 현재의 중리동 지역(쌍청당 일대)이 '아랫송촌'으로, 그리고 17세기 이후 은진송씨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손들의 송촌동 지역(동춘당 일대)이 '윗 송촌'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은진송씨내 지파(支派)의 형성과 관련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즉, 17세기를 전후로 한 은진송씨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성씨집단 내 지파의 형성이라는 내적 긴장관계가 지명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명은 사회집단간의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